



이태종
중앙일보 NIE(신문활용교육)팀장
taejong@joongang.co.kr

“불쌍한 딸을 위해서라도 오래 살아야지. 내가 세상을 뜨면 혼자서 어떻게 살겠어. 어미로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되겠지만 내가 세상을 등질 때 딸애도 함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같아요.”

올해 1백1세의 박옥랑(朴玉郎·광주시 북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할머니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손들의 봉양을 받아도 불편할 나이에 그는 전신마비 상태로 누워 있는 68세의 딸 조의순(趙義淳)씨를 돌보느라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다.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박씨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1939년. 출근한 사이 가정부가 업고 있던 네살배기 딸을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만 것이다. 딸은 그 충격에 머리와 목을 심하게 다쳤다.

박씨는 딸을 들쳐 업고 용하다는 병원·한의원 등을 전전했지만 허사였다.

그 뒤부터 딸은 평생 동안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사는 신세가 됐다. 박씨는 딸의 손발 노릇을 하느라 늙을 틈도, 아플 여유조차 없었다. 이들 모녀는 현재

13평짜리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박씨는 정부에서 매달 52만원씩 나오는 돈을 아끼고 아껴 한 달에



101살 모정

장애인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몇 만원씩은 꼭 저축한다. 자신이 죽은 뒤 딸 혼자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서다.

후천적 장애인이 90%

우리 주위엔 이렇듯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 후천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데뷔작 '콩다리 샤바라'를 히트시키며 스타덤에 올랐던 '클론'의 전 멤버 강원래(34)씨는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꿈을 접어야 했다.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도 지난 1995년 말에서 떨어져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로 추산된다. 대략 4백 50만명이 장애의 굴레를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이 가운데에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2000년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장애 발생 원인은 89.4%가 후천적인 사고와 질병이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환경이 나아지긴 했지만 장애인들은 대다수가 사회에서 소외받고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싸워야 한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장애로 인해 장애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경제적 혜택은 장애수당

월 5만원이 전부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인 월평균 15만 8천 원(2000년 보건복지부 조사)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자 가운데 중증장애인에겐만 지급된다. 장애인들은 또 대다수가 취업이 어려워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충료를 낸 뒤 보상을 받는 국민연금·고용보험·의료보험 등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미래, 자신에 대한 배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후천적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 마련은 비장애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들이 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을 보완하고, 교육과 고용·복지에서 정책적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

다행히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싸울한 시각이 점차 바뀌고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무고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많지 않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또한 태부족이다.

장애인 배려는 현재의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자신에게 닥칠지 모르는 불행을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1백1살 먹은 노인이 전신마비 자식을 뒷바라지 하느라 더 이상 애가 타지 않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PPFK